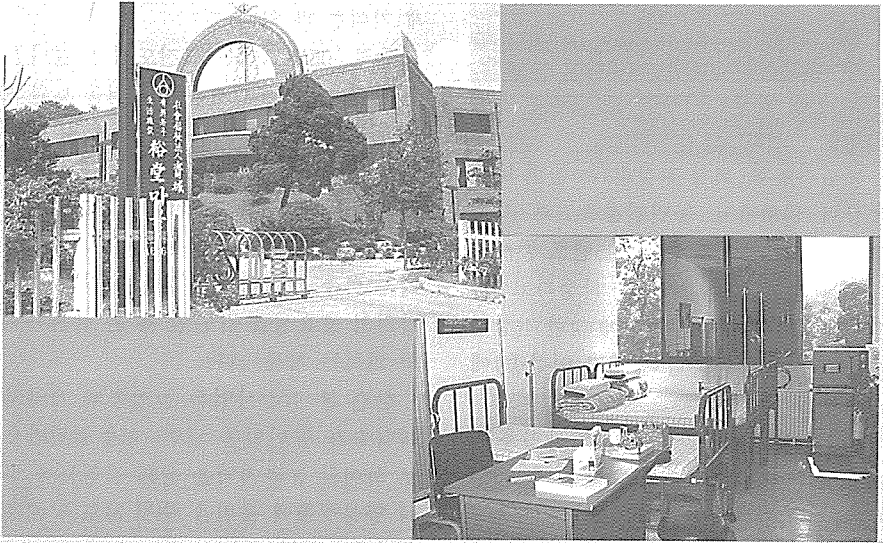




# 국내 최초의 유료 양로원, 유당(裕堂)마을

“편안한 노후를 책임져 드립니다”



우리 나라에서 소위 노인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꽤 오래 되었다. 현대판 고려장이나 노후대책의 필요성,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소외 등의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 대책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을 양로원에 보낸다는 것은 유교사상이 잔존하는 우리의 정서가 허락하지를 않고……. 그러나 이처럼 지키지도 못할 도덕적 양심에 물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대책이 사회적·국가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호에 소개하는 유당마을과 같은 유료양로원은, 앞으로 우리 나라 노인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노인들이 보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유당마을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 •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공간 필요성 절감

우리 나라 최초의 유료양로원인 ‘(사회복지법인) 유당(裕堂)마을’이 개원한 것은 1988년 7월의 일이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회복하게 된 양찬갑(73세)씨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병상에 있는 노인들이 보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유당마을을 설립한 것이다.

그는 가정에서 아무리 노인을 잘 돌본다 하더라도 요즈음과 같은 생활형태 속에서는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어려워,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유당마을을 설립하면서 양찬갑씨는, 그러나 주위로부터의 따가운 시선과도 맞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분야에 경험이 없는 정부 관련자의 경직된 태도, 전통주의적 관념에 의한 백안시, 사회복지시설 이전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적지않은 고통과 갈등을 겪었다.

### • 국제적 수준의 노인 시설로 손색없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유당마을을 이끌어 온 양씨는 그로부터 3년후 지금의 김영국 원장(60세)에게 마을의 실질적 운영을 맡기고 이사장으로 머물면서 마을을 돌보아 왔으며 작년에는 2대 이사장으로 양주현씨가 취임했다.



유당마을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올해로 7년간 운영되어 온 유당마을은 초창기의 사회적 불신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는 국제적 수준의 노인시설로서 노년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아늑한 분위기의 시설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 • 노인 위주의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 운영

대지 4,159평, 건평 1,502평에 총 50실의 규모를 갖춘 유당마을은, 부속의원, 식당, 사우나실, 이·미용실, 헬스실, 강의실, 독서실, 요양실, 오락실,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담 및 체크, 각종 취미교실, 경로잔치, 야유회, 영화감상 등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어 입주 노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한 노인에 의하면, “가정에서 느껴야 했던 소외감과 무료함이 이곳에 입주하면서부터는 노인들 위주의 생활방식과 프로그램 덕분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 •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노인”, 입소 기준

유당마을에는 현재 할머니 28분, 할아버지 18분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입주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이며 90세를 넘긴 노인도 4명이나 된다. 이들 입주자 중 4쌍의 부부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입주는 1인 1실 혹은 2인 1실(부부의 경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노인으로서 소정의 생활비를 매월



유당마을 입주노인은  
모두 46명이며,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라고  
한다.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입소는 보증인(자녀)과 입주 희망 노인이 직접 동행, 내원하여 상담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이 유당마을 입주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와 노인 모두가 입주를 원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입주 보증금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이며 월 생활비는 50만원 정도. 입주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심하게 병이 들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혹은 노인이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퇴소가 가능하다. 면회, 외박, 외출도 언제나 가능하다. 퇴소할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유당마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0331)42-0079, 46-6463으로 문의)

## •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과 후원 절실

유당마을은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유료”라는 사실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후원금, 자원봉사 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역시 은행에 적립해 두었다가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수입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또, 사회복지사의 복지문제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우선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㉔